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모든 것을 자기 탓인 주인공에 내려놓으라!

진정 이 길밖에 없는 것인지요

문 속히 자유스러워지고 싶고 저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절 절한데 잠을 수도 없고 보아지도 않고, 그렇다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 이 공부 가 무척 어렵습니다. 스님, 마음의 길을 배우고 뛰는 것 밖에 저희가 벗어날 방법이 진정 없는 것인지요?

답 왜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지 수차 얘기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십 년간 공부한 분들도 있고, 경학(經學)으로써 수십 년간 공부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마음공부는 글자나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공부 가 아닙니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고 이렇게 분별심을 낸다면 벌써 한 걸나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것이라 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마음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집 멀도 사제법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이 몸도 공 했다고 하셨는데, 고(苦) 하나만 있겠습니까? '고도 공하고 몸도 공하고 물질이 다 공했으니' 할 때는 고(苦) 하나만 없앤다면 집(集)도 없고, 멸(滅)도 없고, 도(道)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수십억 마리의 세포를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나고 들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생들이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은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인과가 됐고, 인과가 있기 때문에 부처 가 되는 겁니다. 처음 인과에 의해서 하나하나 잘 나찰나, 자기가 만악에 살생을 했다 한다면 살생 을 한 대가로서 인연이 된 인과, 수없는 나날을 미 생들에서부터 거쳐 왔으면... 생각해 보시면 아 시겠죠? 사생의 그 길을 다 거뚫다는 것을요. 사 생이란 필 뜻하느냐하면 화해서 낳는 것, 질척한 데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을 말하

우리 몸통이 속에 그 중생들이 전부 하나하나 나오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속고 거기에 만날 뉘매이느냐 이겁니다. 그러 니깐 윤회에 끄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 답는다면 윤회라는 언어도 불지 않는 데 말입니 다. 또는 여러분이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 면 중생이니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알 낳는 거 보셨죠? 수십억 마 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한생각이 잘 돌아가면 보살로 화하게 만들고, 털구멍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이 나고 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잘 못해서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하나하나가 전부 악 으로서 수없이 털구멍을 드나들면서 바깥 경계 안 경계에 끄달리게 하니 어떻게 부처라고 할 수 있으며, 부처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 자체 고등 동 물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나 애겁니다. 그 길 은 뜻을 만약에, 한마음을 잘못 쓰면 영령들이 수 십 개가 악으로부터 나가고, 마음 하나 잘 쓰면 보 살이 수십억 개로부터 나고 듭니다.

그래서 들이고 내는 거 당신이, 또는 죽이고 살 리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라고 놓으라고 하는 겁니 다. 미생들에서부터 거쳐서 오면서 형성시켰고 수없이 거듭거듭 해 왔는데 자기 주인공을 모른 다면 어떡합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어떡합니 까?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음으 로써 자기를 알아야 하고, 자기를 알아야 하기 때 문에 상대를 알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주 천하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없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론으로부터 끄달립니 다. 누가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에 끄달리고 물질에 끄달리고 권세에 끄달린단 말입니 다. 바깥의 경계에 끄달려서 해매고 도니까 이 익이 같게 뭐 있습니까?

이전에 벌써 금방 달라져 가지곤 이익을 주는 이 치가 생기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중요할 것도 없고 앞뒤가 다 끊어져서 지금 현실도 그렇게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해서 돌아 가니 무엇을 할 때에 '나' 라고 할 수 없으니 '무(無)'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앞뒤도 없고 현실도 무 입니다. 시공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도리를 진짜로 배워서, 아니 배워서 될 일이 아니죠. 다가오는 대로 한 번 한 번 체험을 해 가면서 자꾸자꾸 옹공로에다 모든 걸 놓고 가 다 보면 현세는 녹고 새 죄로 재생이 돼서 나오니 또 다른 물건으로 재생된 새 이름을 갖고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중생들을 전부 보살로 화하게 만들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상대를 전부 이익하게 해 줄 수만 있다면 더불어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만 이 모두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나요?

문 저는 지금 박사 과정을 거의 마치고 있는 학생인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 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을

바탕어리가 바깥에서 어떻게 씨를 찾습니까. 바깥에서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 이고, 자기 씨는 바로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면의 씨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안으로 추구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도 밖으로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던 인과로 인해서 문 처진 악업 선업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고, 의식은 체가 없는데도 안으로 찾아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헤매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과거의 나는 부(父)가 되고, 끌려다니는 놈은 자(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부(父)인 주인공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에 요. 내면의 세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이 한마 음으로 돌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속에서 의식이 따라 옵니다. 외부의 모든 것도 다 지수화 풍으로 바람이 됐기 때문에 광력 전력 통신력 자 력, 이 네 가지가 바로 재료가 돼 가지고 바깥에서 나 안에서나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증거입 니다. 그리고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건 우리가 즉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룰도 먹고, 즉 말하하면 자기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 에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살고 있죠. 지금 과학이 발전되는 것도, 의학을 연구하는 것도, 생물학을 연구하는 것도 그 그런 게 아니라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만 알면 모든 게 거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두루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학이든지 천문학이든지 천체 물리학이든지 생물학이든지 의학이든지 전부 마 음으로 공부해서, 지금 시대는 의학도 정신의학 이 아니면 100%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두루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입니다. 지금 수소폭탄이나 핵폭탄이니 해 놔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물질이 있기 이전에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두를 한 자기발 전소에서 통하게 해야만 내가 약하면 기도 넣을 수 있고 또 병이 나면 그 병 난 데서 고칠 게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잘못됐서 잘못 생각 을 하면 바로 파워를 일으키고,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약하게 생각을 한다면 몸속에 들어 있는 의 식이 다 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를 망가트리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간에 자기 마음 탓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한생각 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그 렷고 어떤 일이 잘 안될 때도 그렇고 일체를 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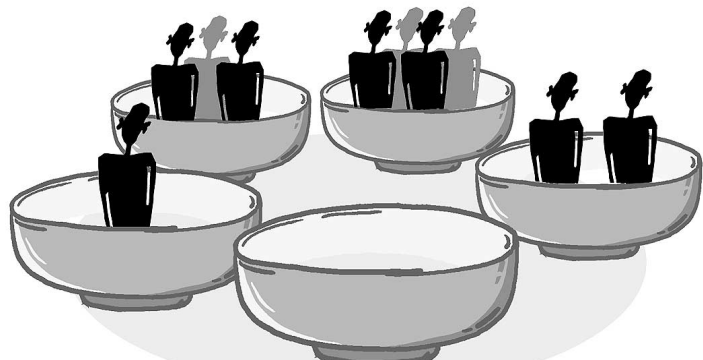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짜로 믿을 때 간절히 믿을 때 모든 일은 안되는 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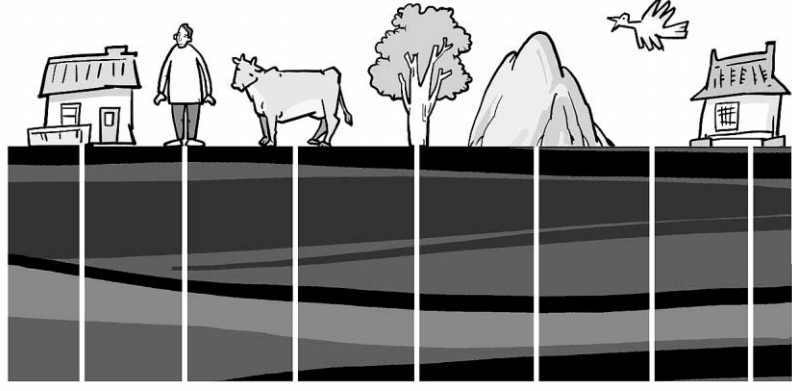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데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을 말합니 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거쳐 올라올 때 얼마나 죄 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다, 지었다' 이런 말 할 게 없이 얼마나 좇고 쫓기면서 인과의 유전과 또 는 인연에 따라서 한데 모였겠습니까. 현실의 몸속에서 때에 따라서 화기가 치미는 거는 바로 화광지옥입니다. 왜 화광지옥이라고 했느냐 하면, 인연에 따라서 그 인연이 돌면, 그 때가 되면 바로 속이 불타게 만들고, 가환이 있게 만들고, 팔다름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부자연하 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환, 질행, 우환, 가난, 내 몸속에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이 다 차례 로 돌아가면서 고통을 주니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런 겁니다. 왜? 만약에 팔랑개비가 돌아갈 때 대 를 잡고 있으면 되지 팔랑개비 돌아가는 데에 거 기에 자꾸 말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속 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색색가지 차인데로 인연 에 따라서 타쳐오는 액운, 고통인데 왜 거기에서 자꾸 끄달리고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가오는 대로 나온 자리에 다시 놓으라고 하는 겁니 다.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갖고 거기가 놓고, 수없이 경계가 안에서 나오려 라도, 바깥에서 오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다그쳐 나가고 관한다면 얼마나 이익이 오는 줄 아십니까? 한 번 놓는 데 보살 하나를 화 신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진실히 믿고 한 번 내려 놓는 데 화신이 된다면 그 화신은 보신도 될 수 있 고, 관세음도 될 수 있고, 지장도 될 수 있고 그 어 떤 것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한생각에 만법이 들고 한 생각이 만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이고 숭상해 줄 수 있는 여유 를 가지시고, 저녁에 단 10분 동안이라도 관하고 좀 조용히 앉아서 모든 걸 마음에만 등글러서 '주 인공! 모든 일체를 들이고 내는 것은 당신에게 달 렸소.' 하고서 관해 보세요. 또 상대방이 나를 미워 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식구들한테나 주위의 아 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결말 '주인공,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등글리고 다치게 해 주느 라고 이러는구나. 참 저 사람이 감사하구나.' 이러 게 돌려놓으세요. 중요하기보다 미워하기보다 감 사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하기

때가 있습니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그런 것들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저희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경 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

답 기체가 맺들이 돌아갈 때 중심을 잡아 주 는 심분을 쫓지 않는다면 이탈이 되고 굴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음 중심 심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분은 과거 전생의 영 혼 자체가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래서, 못났든 잘났든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공했기 때 문에 지금도 할나할나 우리는 놓고 가고 있으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이 나 오는 것입니다.

과거 자기는 씨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 문에 현재 자기가, 수박으로 치면 몸통이는 바로 수박이고 씨는 수박씨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 기 깊은 내면세계의 씨는 안 보고 수박이 어떻게 됐나 하고선 바깥에서 찾습니다. 바깥에서 찾은 채가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모든 것이 직결돼 있 게 돼 가지고 다시 수박이 달려서 익었는데 그 수

자기 씨는 바로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안으로 추구하고 들어가야

기에서 물리가 터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으니 알삼달삼요. 누가 어느 고깃덩 어리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형상을 믿으라 고 한 것도 아니고, 허공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 니고,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 다. 단 하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 는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 그 자체를 중심 삼고 자기 근본을 믿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 심에 달려 있는 의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도 리를 알면 전부 지배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을 믿고 거기다가 다 믿고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거기에 감사할 때, 이열치열 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없더라도 자기 가 일어 나듯이, 거길 누르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안되는 것이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지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 서 나온다.' 하는 것을 진짜로 믿을 때, 간절히 믿 을 때 모든 일은 안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 기가 실험해 보지도 않고, 믿어 보지도 않고, 연구 해 보지도 않고 자기 사랑으로 생각해서 무쪽같 이 '이건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스스로 괴롭 게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 고 진리를 실험하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 체가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모든 것이 직결돼 있 고 가설이 돼 있으니 하나가 틀리가 터진다면

리에 다시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관하세요. 순간 순간 생각에 끄달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걸 주인공한테 맡기고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자 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날라지 게 되고, 들끓던 마음이 가라앉아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못하 게 되는 경우가 생겨도 웃으면서 뜻이 있을 거라 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 로 살아가면서 모든 걸 진정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이탈되지 않습니다. 범우님도 잘해 낼 거라고 믿습니다.

늘어붙은 습을 제거하려면...

문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속업의 습에 의해 서 올바르게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마음의 틀을 자꾸자꾸 키우고만 있는 것 같아 가 슴이 갑갑합니다. 스님, 딱지덕지 붙어서 떨어지 지 않는 세세생생의 습과 업을 녹이고 삼독을 벗어 나 자유스럽게 살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사셨고 지금도 사시고 계시고 그전에도 사셨고, 그 렷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살아나가 는 그 방식에 의해서 관습이 되어서 영 놓을라야 놓을 수가 없이 짜들고 겹겹이 늘어붙은 거와 같 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늘어붙은

